# 한국GM, '인천 경제 살리기 워킹페스티벌' 개최

### 인천장애인 위해 스파크 기증도

한국지엠 및 협력사 임직원, 인천시민 2만여명이 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인천경제 살리기 워킹 페스티벌'에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다짐하고 인천 장애인 기관에 쉐보레 스파크를 기증했다. /한국GM

한국지엠(GM)이 '쉐보레와 함께하는 인천경제 살리기 워킹 페스티벌'을 지난 2일 인천 송도 달빛축제 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걷기 대회에는 한국GM과 협력사 임직원 가족, 인천 시민 등 2만여명이 참석했다.

한국GM 협력업체 모임인 협신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앞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GM을 지지해준 지역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임한택 노조 지부장, 조니 살다나 GM 해외사업부문 구매 부사장,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송도 국제업무지구 일대 5㎞ 구간을 걷고 인기가수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열었다.

행사와 더불어 한국GM은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협신회를 통해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쉐보레 스파크 1대를 기증했다. 기증된 스파크는 장애인 학대 예방활동 등 인천 지역 장애인 보호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신형 스파크를 출시한 쉐보레는 내수 시장 입지 강화를 위해 고객에 초점을 맞춘 프로모션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난 5월 11일부터 매일 1명씩 스파크를 경품으로 추첨하는 전시장 방문 이벤트를 진행중이며, 오는 8월 18일까지 총 100명의 당첨 고객에게 스파크 100대를 증정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 한국수력원자력 전통시장 구매물품 아동센터에 기부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 전통시장인 성동시장과 중앙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해 물품을 구입, 경주 동천동 소재 푸르른지역아동센터 등 4개 지역아동센터에 이를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한수원은 앞으로 내년 1월까지 총 3200만원 어치에 달하는 물품을 매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해 구입, 경주지역내 아동센터에 순차적으로 기부해 나갈 계획이다. 장보기 예산은 본사 전직원이 매월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러브펀드를 활용할 계획이다.

한수원 전영택 기획본부장(맨 왼쪽)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

## 새로 나온 책

### 그녀 이름은

다산책방/조남주 지음

70만 독자를 사로잡은 '82년생 김지영' 작가 조남주가 2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 소설집이자, 작가의 첫 소설집이다. '82년생 김지영'에서 다 하지 못한 수많은 '그녀'들의 이야기가 '그녀 이름은'에서 다채롭게, 보다 당당하게 펼쳐진다. 특별한 것 없어 보이지만 누구보다 용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대한민국 '그녀'들의 땀과 눈물로 완성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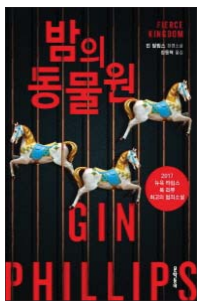
조남주 작가는 '82년생 김지영' 출간 이후 "특별하지 않고 별일도 아닌" 아니, 그렇다고 여겨져온 여성들의 삶을 "더 많이 드러내고 기록"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다. 아홉 살부터 일흔아홉 살까지 60여 명의 여성들을 인터뷰한 이야기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경향신문'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제목의 르포 기사로 연재됐다. 그녀들이 '별일도 아닌데'라며 운을 뗀, 그러기에 작가가 더 경청한 저마다의 인생은 소설로 다시 쓰이고 28편의 이야기로 묶여 '그녀 이름은'으로 선보이게 됐다. 집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뉴스에서, 겪거나 목격했지만 '별일 아니'라며 스스로 삼켜버린 이야기들이 비로소 목소리를 찾은 것이다.

**276쪽, 1만4500원**

/신정원 기자 sjw1991@

### 밤의 동물원

문학동네/진 필립스 지음




영화 '다이하드'에서 '테이큰'까지, '악'을 물리치고 가족을 구하는 '영웅'은 항상 '아빠'로 그려진다. '엄마'라는 존재를 스크린이든 소설이든 '현대 영웅 서사'에서 만나기란 쉽지 않다. 육아와 양육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할애하면서 아이와 더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는 엄마라는 존재는 아이가 혹은 가족이 위기에 빠진 현장에서 왜 항상 소외되어온 것일까?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이 '밤의 동물원'이 하나의 전복적인 답변이 될 것이다.

**320쪽, 1만5000원**

/신정원 기자

---

## 오늘의 운세

6월 4일 (음 4월 21일) http://www.saju4000.com

쥐 — **48년생** 겨울인가 했더니 매화가 피었으니 희망이 가까이 있다. **60년생** 좀 부족한 게 좋다. **72년생** 내가 가진 특기를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니 즐겁다. **84년생**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으니 좀 쉬어야 할 때이다.

소 — **49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길이 보인다. **61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이다. **73년생** 금전 문제로 주변에 속상할 일이 생긴다. **85년생** 대목장 집에 기둥이 휘었다더니 자기 주변부터 살펴라.

호랑이 — **50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말자. **62년생** 내가 편안해야 집안이 잘 돌아간다. **74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되니 바른 사고를 지녀라. **86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행동할 때이다.

토끼 — **51년생** 남쪽으로 길을 나서면 발걸음이 가볍다. **63년생** 아는 길도 물어 가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75년생** 마음은 하늘의 별이라도 딸 듯한 기세이나 자중할 때. **87년생** 부는 바람이 내 마음을 흔드니 갈등이 생긴다.

용 — **52년생** 내 것은 작아 보이나 내 자식은 커 보인다. **64년생** 예의 바른 행동은 어딜 가나 대접받게 한다. **76년생**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면 실수가 없다. **88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힘껏 노를 저어야 할 때.

뱀 — **53년생** 오늘 힘들어도 걸어야 내일 뛰지 않는 법이다. **65년생** 산도 좋고 물도 좋은데 정자까지 좋은 곳은 없다. **77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잊는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89년생** 전체를 파악해야 갈 길이 보인다.

말 — **54년생** 조급히 서두르지 말고 자손에게 조언을 구하라. **66년생** 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는 양보해야 한다. **78년생** 결과도 중요하나 진행과정을 무시하지 마라. **90년생** 상사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양 — **55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다. **67년생** 99%의 노력도 1%의 영감으로 결실을 본다. **79년생** 생선을 먹고 싶다면 그물을 먼저 준비해라. **91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

원숭이 — **56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이 건강의 최선이다. **68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실수도 튀어나온다. **80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오늘이 그 날. **92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먹을 수 없다.

닭 — **57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개가 필요한 날이다. **69년생**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시도해 보자. **81년생** 하나를 뿌렸는데 열 개로 돌아온다. **93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크게 보고 진행하라.

개 — **58년생** 모난 돌이 정 맞은 법이니 오늘은 나서지 말라. **70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오는 법이다. **82년생** 아랫사람을 탓하지 말고 서류를 잘 살펴라. **94년생** 가족관계라 할지라도 공과 사는 분명히 하라.

돼지 — **59년생** 주변이 시끄러울 수 있으나 뜻밖의 행운이 있다. **71년생** 배우자의 위로가 필요한 날이다. **83년생**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멀지 않았음이니 조금만 참고 견뎌라. **95년생** 변동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전진하라.

---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 | | | | | | | | |
|---|---|---|---|---|---|---|---|---|
| | 5 | | 6 | | | | 4 | |
| 9 | | 7 | | 8 | | 5 | | 2 |
| | 2 | | 4 | | | | 7 | |
| | | | | 6 | | 3 | | 4 |
| | 9 | | | 3 | | | 1 | |
| 1 | | 6 | | 2 | | | | |
| | 7 | | | | 6 | | 9 | |
| 3 | | 4 | | 1 | | 2 | | 8 |
| | 1 | | | | 8 | | 3 | |

| | | | | | | | | |
|---|---|---|---|---|---|---|---|---|
| | 3 | 6 | | 4 | | 7 | 1 | |
| 2 | | | | 1 | | | | 5 |
| 1 | | | 2 | | 7 | | | 8 |
| | | 3 | | | | 5 | | |
| | | 4 | | 5 | | 6 | | |
| | 5 | | 7 | 6 | 2 | | 4 | |
| | 6 | | | | | | 7 | |
| | 7 | | 6 | 3 | 1 | | 5 | |
| 5 | | | 4 | | 8 | | | 6 |

**스도쿠 정답**

| | | | | | | | | |
|---|---|---|---|---|---|---|---|---|
| 8 | 5 | 3 | 6 | 7 | 2 | 1 | 4 | 9 |
| 9 | 4 | 7 | 1 | 8 | 3 | 5 | 6 | 2 |
| 6 | 2 | 1 | 4 | 9 | 5 | 8 | 7 | 3 |
| 7 | 8 | 5 | 9 | 6 | 1 | 3 | 2 | 4 |
| 4 | 9 | 2 | 8 | 3 | 7 | 6 | 1 | 5 |
| 1 | 3 | 6 | 5 | 2 | 4 | 9 | 8 | 7 |
| 2 | 7 | 8 | 3 | 5 | 6 | 4 | 9 | 1 |
| 3 | 6 | 4 | 7 | 1 | 9 | 2 | 5 | 8 |
| 5 | 1 | 9 | 2 | 4 | 8 | 7 | 3 | 6 |

| | | | | | | | | |
|---|---|---|---|---|---|---|---|---|
| 9 | 3 | 6 | 8 | 4 | 5 | 7 | 1 | 2 |
| 2 | 8 | 7 | 3 | 1 | 6 | 4 | 9 | 5 |
| 1 | 4 | 5 | 2 | 9 | 7 | 3 | 6 | 8 |
| 6 | 9 | 3 | 1 | 8 | 4 | 5 | 2 | 7 |
| 7 | 2 | 4 | 9 | 5 | 3 | 6 | 8 | 1 |
| 8 | 5 | 1 | 7 | 6 | 2 | 9 | 4 | 3 |
| 3 | 6 | 8 | 5 | 2 | 9 | 1 | 7 | 4 |
| 4 | 7 | 2 | 6 | 3 | 1 | 8 | 5 | 9 |
| 5 | 1 | 9 | 4 | 7 | 8 | 2 | 3 | 6 |

문제 제공= 보누스

---

## 김상회의 四季

###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전통과 풍습 중에서 제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제사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참으로 시대가 변하기는 많이 변했다. 제사 전통은 분명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지만 현대인들의 사고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우선 제상에 올라가는 음식만 봐도 그렇다. 과거 먹는 것이 귀하던 시절 제사 때만큼이라도 걱정 없이 여러 종류의 음식을 장만해서 조상들께 흠향 올린 뒤 자손들이 모여 앉아 제사음식을 즐기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나 풍족해지고 입맛 또한 달라졌다. 오히려 제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은 상을 물린 후에도 그리 환영받지 못한 찬 밥 신세인 것이다. 그러니 가족들의 상의 하에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조정을 해도 무방할 것이고 이러한 인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는 듯하다. 필자의 신도 중 한 가정은 기제사를 지낼 때 꽃과 과일과 향 그리고 차를 올린다 한다. 물론 촛불도 켠다. 그리고 모인 가족들 친지들은 함께 절을 올리고 다과를 나눈다 한다. 그러다보니 제사상 문제로 형제들 동서들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은 하지 않는다. 어떤 신도는 기일에 맞춰 부모님 묘소를 찾아뵙는데 묘소 참배가 끝나고 나면 근처 맛집에서 식사를 하고 온다고 한다. 기일이 평일이면 앞 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참배를 한다고 한다. 시대가 달라졌으니 조상님들도 이해하실 것이다. 사실 제사 자체를 잘 지내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부모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순종했었다면 돌아가신 뒤 제사는 굳이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조금은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순종의 진정한 의미는 구약성서에서도 보이는 것 같다. 구약성서 사무엘 상(上)에 나오는 구절로 기억된다. 하나님에의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는 구절로 기억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아브라함의 귀한 자식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한다. 이삭이 어떤 아들인가? 아브라함이 백세에 난 자식이 아닌가? 많은 번민이 있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다. 이삭의 목에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은 "멈춰라!" 하시며 "이제야 네가 나를 아느냐,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한다. 참으로 의미 있는 함축 아닌가? 그러니 돌아가신 다음에 잘 하려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 한다. 살아 계실 때도 제 멋대로 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잘 모시네 못 모시네 하는 것 참 우스운 일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